

9월 10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9월 10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p>美증시, 베이지북 실망 극복..다우 0.5%↑</p>	<p>뉴욕 증시가 9일(현지시간) 상승하며 나흘째 랠리를 이어갔음.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베이지북이 미국의 더딘 경기 회복세를 확인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장 막판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며 주요 지수를 끌어올렸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전일대비 49.88포인트(0.53%) 상승한 9,547.22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2.62포인트(1.11%) 오른 2,060.39를,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7.98포인트(0.78%) 뛸 1,033.37을 각각 기록했음.</p> <p>뉴욕 증시는 장 초반 보험권에서 등락하다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의 경기회복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며 상승세로 방향을 잡았음. 양적완화 통화정책 기조를 거둬들이기는 너무 이르다는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의 발언도 증시에 안도감을 더해줬음. 그러나 베이지북이 미국의 경기 회복세에 대한 엇갈린 신호를 보여주며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쏟아졌고, 지수는 상승폭을 축소했음. 다만 고용과 소비가 취약한 상태라는 베이지북의 내용이 새로울 것이 없다는 인식이 저가 매수세를 불러 일으켰고, 지수는 장 막판 상승폭을 확대하며 장을 마쳤음. 아울러 달러 약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세도 주가 상승을 지지했다. 달러지수는 이날 0.32% 하락했고, 유가는 소폭 오르며 배럴당 71달러선을 유지했음. 다우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가운데 19개가 올랐고, 11개가 하락했음.</p>
<p>베이지북, 엇갈린 신호 보여줘</p>	<p>연준이 공개한 베이지북에 따르면 미국 대부분 지역의 경제가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제조업 활동이 증가하고 거주용 부동산 시장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다만 고용과 소비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음.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 12개 지역 가운데 11개 지역의 경제에서 안정 또는 회복 신호가 나타났음.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5개 지역의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보고됐으며, 6개 지역은 경제가 안정된 것으로 보고되었고 세인트루이스 지역만 유일하게 수축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음. 베이지북은 "대부분 지역의 기업들은 향후 전망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부분 지역의 거주용 부동산 시장과 제조업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음.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업용 부동산 수요가 여전히 취약하며, 고용과 소비 역시 부진한 상태라고 베이지북은 전했다.</p>

제목	주요 내용
유가 강세 지속	달러가 약세를 지속하면서 달러로 거래되는 원유 등 상품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했음. 이날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전일대비 21센트(0.3%) 오른 71.31달러로 마감했고 이는 지난 8월28일 이후 가장 높은 가격임.
EU "中 잉여생산성, 국제적인 우려 사안	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무역위원회(EUTC)의 캐서린 애쉬톤 위원은 "이같은 상황은 중국 경제가 수출 의존을 줄이고 소비와 서비스 산업에 의해 주도돼야 한다는 원자바오 총리의 요구와 불일치한다"고 지적. 또 "과잉생산으로 고통받는 영역에 대출이 집중되면서 불공적 무역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다"며 "지속적인 발전 경로를 만드는 것이 큰 과제"라고 판단. 애쉬톤 위원은 중국이 재생에너지 등 공공투자에 대해 외국 기업들에게 더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촉구. 그는 "입찰 기준이 경쟁을 불가능하게 하면서 해외기업들이 풍력발전 계획 등에서 50억유로 이상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소니 "연말 日 LCD TV 시장 50% 성장"	소니가 연말 쇼핑 시즌에 일본 액정표시장치(LCD) TV 시장이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9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 구리타 노부키 소니 마케팅 부문 사장은 "정부의 친환경 가전 보조금이 LCD TV 판매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며 "9개 LCD TV 라인업을 갖춘 소니의 연말 매출을 확신한다"고 말했음. 이날 소니는 일본내 판매증진을 위해 유기발광다이오드(LED)에 기반한 LCD TV 판매촉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니는 지난 7월 TV와 비디오게임기 판매 침체로 2분기 연속 분기손실을 기록했음. 소니는 올해 회계연도에 1,200억엔의 순손실을 예상하고 있음.
8월말 누적 재정집행 199.3조..연간 집행률 73%	기획재정부는 9일 오후 이용걸 2차관 주재로 '14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집행실적 및 3분기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했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집행관리 대상 예산 272조8,000억원중 8월말까지 집행된 199조3,000억원에는 본예산 191조4,0000억원, 추경예산 7조9,000억원이 포함됐음. 연간 집행률은 73%에 이룸. 이로써 9월이후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본예산 66조3,000억원, 추경예산 7조2,000억원 등 총 73조5,000억원 남게 됐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